



안녕하십니까? 세계 2천만 명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국제산별연맹인 국제공공노련 사무부총장 데이빗 보이스입니다.

먼저, 국제공공노련의 모든 조합원을 대신하여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마음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피할 수 있었던 이 참사에 큰 충격과 슬픔을 느낍니다.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 무분별한 외주화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의료, 대중교통, 상수도과 에너지 부문에서 똑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의 폐해를 우리 아이들에게 남기면 안 됩니다.

이제 많은 나라처럼 한국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를 사용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50년 간 한국은 놀라운 정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국가 건설을 위해 수백만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면서 희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개발경로를 벗어나서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사회가 충분히 부유하기 때문에 모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양질의 공공의료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합니다. 모든 노인에게 필요한 공적 연금을 제공할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공교육, 교통, 물과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이들의 안전에 필요한 규칙과 규제를 지킬 여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민영화와 규제완화의 길을 선택하여 모든 것을 민간에 파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여 정부와 기업들이 말을 들을 때까지 목소리를 높이세요.

세월호 참사에서 얻을 것은 안전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한국사회를 만들 결의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쟁취하기 위한 단결, 결의와 용기입니다.

국제공공노련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조사와 이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라는 여러분의 요구를 지지합니다.

국제공공노련과 세계 각국 가맹조직들이 한국 국민과 노동자와 함께 싸우겠습니다.